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2. 12.(목)

산업부 장관,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깜짝 행보'

12일(목) 남대문시장 찾아 시장상인·청년 의견 청취하고 민생물가 점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목)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였다.

* 청년자문단 :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입한 물품은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여 따뜻한 온기를 나눌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조정환 (044-203-43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